



주간 통일정세

2007-1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식량 및 농업>

● 올해 6만 6천ha 산림조성(11/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임업성은 올해 6만 6천여ha의 산에 나무를 심었으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인 산림조성 계획을 107.2% 넘쳐 수행한 것”임을 밝힘.
- 그 중에서도 보다 많은 묘목을 키운 지역으로 자강도 성강, 강계시, 장강군, 평안남도 덕천시, 평안북도 동창군, 함경남도 단천시, 수동구, 함경북도 경성군, 회령시, 강원도 판교군의 ‘공업림경영소’ 등이 지적되었음.

● ‘고품질 전략’ 강조하는 북한 경제(11/18, 조선신보)

- “원가가 낮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경영전략을 그만두고 원가가 높아도 보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경영전략”에 성공한 사례로 조선경흥무역회사의 선홍식료공장이 소개되었음.
- ‘선홍표’ 식료품의 경우 종이 다양하고 질이 높아 평양 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상점에서 유통될 정도로 인기이며, 공장의 생산능력도 1999년 조업 당시보다 10배로 성장했고 제품도 빵, 사탕, 과자, 전통당과(糖菓), 음료 등 수 백 종에 달하는 것으로 선전

● 추수를 고려하는 탄력적인 국토관리 주민동원 운용(11/15, 조선신보)

- “2007년 6월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는 “농업지대의 가을걷이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
- 매년 국토관리 기간을 봄철 3~5월, 가을철 9~11월로 정하고 내각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토관리총동원지휘부’를 통해 일제히 국토관리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을 올 가을부터는 8월부터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국토관리 주민동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

나.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대공연 관람 (11/7, 11/1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은 제31차 군무자 예술축전에 자주 참석, 군인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군대에서 ‘선군(先軍) 문화’를 꽃피워 사회 전반에 퍼뜨릴 것을 강조



- 김정일은 11월 5일 제775군부대와 제176군부대 산하 중대의 공연 및 11월 7일 제682부대와 제3993부대 군인들의 공연을 각각 관람한 바 있음.

다. 기타

- **한의학 자료 2만여건 집대성(1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려의학(한의학)과학원이 최근 한의학 관련 자료 2만여 건을 집대성한 '자료기지'를 새로 구축
- **腸전염병 예방약 개발(11/14, 조선중앙방송)**
 - 평양시 위생방역소에서 각종 장(腸) 세균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약품을 개발
- **평양서 유네스코 과학기술도서전 개막(11/12, 조선중앙통신)**
 -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과학기술도서전시회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
- **저작권법 시행령 제정(11/2, 민주조선)**
 -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03년 3월 '저작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 '저작권법 시행규정'을 제정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대표단 美서 금융 배우기(11/18, 연합뉴스)**
 - 북·미간의 전반적 금융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금융실무회의가 개최(11/19)되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이 뉴욕에서 국제 금융시스템 배우기에 나섬.
 - 기광호 재무성 대외금융금국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북측 금융실무회의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의 한반도 및 금융 전문가들과 만나 국제금융체제 편입방안 등을 논의한데 이어 주말인 17일에도 월가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미국의 상업 금융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짐.
- **美 하와이 미사일 요격실험에 대한 비난(11/13, 노동신문; 민주조선)**
 - 13일 '군사적 패권 야망의 발로'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논평에서 미국방부가 지난 6일 하와이 인근에서 미사일 요격 실험을 벌인 것은 "미 호전세력들의 군사적 패권 야망이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한 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고 강조

- ‘힘의 논리를 체질화한 자들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민주조선 논평에서도 “미국은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선제 타격 능력을 마련하기 위해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

나. 북·중 관계

● 中당국 조난선박 구조에 공식 사의(11/17, 조선중앙통신)

- 17일 중국이 옌타이(煙臺) 인근 해역에서 침몰된 ‘증산호’의 선원들을 구조해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시하고 북·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

다. 북·러 관계

● 北별목공 등 3천500명 내년 사할린으로 송출(11/15, 연합뉴스)

- 러시아 이타르 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3천500여명이 내년에 러시아 극동 사할린으로 보내져 별목공 등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함
- 통신에 따르면 사할린주(州) 통상경제협력 실무그룹과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4일 평양에서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서에 조인했으며, 양측은 또 사할린으로 북한의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한은 사할린 소재 원유, 가스 연구소와 대학에서 북한 전문가들을 훈련시켜 줄 것을 러시아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인력 송출은 지난 2002년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가속화됐으며 현재 사할린 3천여명, 아무르주 2천여명 등 극동 지역 전체에서 2만여명이 넘는 북한 인력들이 별목공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라. 기타 외교 관련

● 北김영남, 뉴질랜드 외무장관 접견(11/16, 조선중앙방송)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을 접견
- 피터스 장관은 북한 박의춘 외무상의 초청으로 지난 14일 방북,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 경제대표단 쿠바 칠레 방문(11/14, 조선중앙통신)

- 림정만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정부 경제대표단이 쿠바와 칠레를 방문하기 위해 14일 평양을 출발



● **적십자 및 적반월사 국제연맹 제16차 총회와 제30차 국제적십자대회에 참가(11/14, 조선중앙통신)**

-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백용호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적십자회 대표단 평양 출발

3. 대남정세

● **총리회담관련 보도(11/16, 조선신보)**

- “회담장에서 더 이상 헛된 말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10·4선언 이행에 관한 실천행동이 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수뇌부의 뜻”이었으며 이것이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드물지 않는 행동원칙”이었다고 전제
- 이번 총리회담 결과 관련 “과거와 선을 긋고 북남관계를 새로운 발전 단계로 끌어올리는 쌍방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새로운 제도와 질서 실천의 첫걸음”, “실천과 행동을 위한 회합”으로 평가
-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경제협력에 관해 일련의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북측이 “모든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푼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임을 밝힘.
- 특히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통일에 이롭게 정비해나가는 문제를 비롯해 10·4선언의 정치적 조항들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

● **‘제주산 마늘’ 北에서 건강식품으로 개발(11/15, 연합)**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초청으로 최근 도민 70명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방북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이 제주산 마늘을 가공해 건강식품으로 개발하는데 공동 협력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힘.
- 민화협 김영대 회장은 지난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태환 제주지사 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개성에서 이뤄지는 제주산 마늘의 가공은 제주도와 북한 양측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량을 더욱 늘리고, 이를 건강식품으로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이같이 제안
- 또 김 회장은 또 제주도의 축산브랜드인 ‘흑돼지’ 사육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우리 민족의 상징인 한라-백두산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탐사 및 학술대회 등을 한라산연구소와 천지연구소가 함께 진행하자고 제의
- 제주도와 북측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협의키로 함.



- **김윤규 회장, 北과 동해모래 20년 채취권 계약(11/13, 연합)**
 - (주)아친글로벌코퍼레이션(회장 김윤규)과 (주)샤인시스템(대표 김진오)은 12일 개성에서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및 개선총회사 관계시들과 만나 북한 동해의 바닷모래를 20년간 채취할 수 있는 사업권에 관한 정식계약을 체결
 - 이 계약에 따라 샤인시스템은 15일 모래채취선 3척을 투입하고, 앞으로 수 개월내에 수 십 척의 모래 채취선을 북으로 보내 6개월 이내에 월 100만^m, 연간 1천200만^m 이상을 채취해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요처에 공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

- **남북 국방장관회담 27~29일 개최(11/12, 연합)**
 - 남북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오는 27~29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국방부는 12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북측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의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남·북·중 부속협약, 성과 없이 종료(11/10~12)**
 - 남·북·중 3자는 지난 달 판문점에서 개최(10/30)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에서 합의한 “공급방식이 합의되는 대로 연내 발전설비 제공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선양에서 협상했음.
 - 한·미·중·러가 대북지원 증유 50만 톤을 최근 3개월간 평균 국제시가로 환산해 제공키로 한 360개 항목의 발전설비 중 60개를 올해 안으로 우선 지원해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놓고 3자가 하루 더 연장해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 양자 등 방식으로 추가 협상을 벌인다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했음.



나. 미·북 관계

● 미 「북한인권법」 예산, 한푼도 집행 안돼

-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인권 개선, 탈북자 지원 등에 2,400만 달러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관료적 형식주의 때문에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11/12)했음.
- 홍콩대학을 방문한 크리스천 휘턴 미 국무부 북한 인권담당 부특사는 “이 돈 중 한푼도 아직 미 의회의 예산집행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등에 4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 힐, “북 UEP 의혹해소에 진전”(11/14)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제네바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과 북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의혹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some)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음.
-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한국 및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미국 측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늄을 정제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보도(11/10)했었음.

● 북 금융실무회의 대표단, 방미(11/15)

- 미·북간 금융실무회의(11/19~20)에 참석할 북한측 대표단이 뉴욕에 도착했음.
- 기광호 재무성 대외금융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대표단은 뉴욕에 도착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11/16), 미국의 한반도 문제 및 금융 전문가들과 만나 국제금융체제 편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 힐, “북 테러지원국 해제 내년 1월 중순쯤 가능”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 금년을 넘겨 내년 1월 중순쯤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11/16)했음.
- 힐 차관보는 지난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램토스 위원장과 로스-레티넨 공화당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불능화와 핵시설 신고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11/15)했음.

- 의회 관계자는 “힐 차관보가 테러지원국 삭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추수감사절 휴회가 끝나고 의회가 다시 개원하는 12월 3일 이후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다. 중·북 관계

● 중, 올 6월부터 전력설비 대북원조

- 단둥시 인민정부와 동베이전망(東北電網) 유한공사 웹사이트에 따르면(11/15) 지난 6월 15일 전력설비 1차 원조분이 북한에 제공된데 이어 지난 달 25일에는 컨테이너 11개 분량의 2차 원조분이 단둥을 거쳐 북한의 평양에서 가까운 서포역에 도착했음.

라. 러·북 관계

● 실종 탈북자 극동서 도주, UNHCR 보호

- 러시아 라디오 방송인 「에호 모스크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11/12), 모스크바에 거주하던 탈북자 정모씨가 러시아 보안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소환되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도주(11/2)했음.
-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가 러시아 극동 하바로프스크에서 강제 송환 직전 도주,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할린주·북, 무역경제협조 회의 개최(11/14)

- 사할린주 통상경제협력 실무그룹과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평양에서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회의를 갖고 의정서에 조인했음.
- 북한 노동자 3,500여명이 내년에 러시아 극동 사할린으로 보내져 건설, 벌목, 수산가공,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될 예정임.

마. 다자 관계

● 남북한·러 등 5개국, 두만강유역 개발 논의(11/15)

-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몽골 등 5개국 대표가 참석한 두만강유역 개발 자문위원회 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막되었음.
- 참가국 대표들은 두만강유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와 개발기금 조성 문제, 내년도 사업예산 등을 논의했음.
- 이들 5개국은 1995년 두만강유역 개발 프로젝트의 이행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미·중 관계

- **미 의회보고서, “중·북 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물품 주요 공급처”(11/15)**
 - 초당적 미 의회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점검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기업이나 사업주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북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음.

나. 미·일 관계

- **일 의원단, ‘북 테러지원국 제외 저지’ 미국행(11/14)**
 - ‘납치구출의원연맹’ 회장인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상을 포함한 일본의 여야 의원 6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음(11/14).
 - 그러나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납치자 문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는 반드시 연계처리 돼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미·일, 정상회담 개최(11/16)**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테러와의 전쟁 협력방안, 양국간 동맹강화 및 협력확대 방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후변동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